

## 제4장 — 첫 임무의 냄새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왕궁의 회랑을 지나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아침 식탁의 빵은 여전히 따뜻했으며,  
수로 위로 올라오는 인어들의 숨소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누군가가 “전쟁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왕국의 예의이자 자기최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안다.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먼저 공기 속에서 냄새로 태어난다.

소금이 지나치게 늘어붙고, 바람이 원래처럼 흠  
어지지 않고,

항구의 비린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내려  
앉으면, 누군가가 바다를 건드렸다는 뜻이 된  
다.

바다가 건드려졌다는 건 곧 세계의 균형이 손  
톱만큼이라도 어긋났다는 뜻이고,  
균형이 어긋나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  
-혹은 누군가의 질투-에서 비롯된다.

왕궁의 아침은 조용했다. 바닥 아래로 흐르는  
바닷물이 낮은 소리로 이어지고,  
햇빛은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하얗게 희석되어  
회랑의 벽과 기둥에 얇은 막처럼 내려앉았다.

이 왕궁은 육지가 아니다. 완전히 바다도 아니  
다.

마치 바다와 육지가 서로를 인정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유지되는 구조물처럼,

기둥 아래에는 늘 물이 흐르고, 방마다 아주 작은 수로가 숨을 쉬듯 이어져 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다.

뒷골목에서 조용함은 곧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소리가 없으면 누군가 칼을 숨기고 있고,  
조용하면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조용하면 당신이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곳의 조용함은 다르다. 이곳의 조용함은 위험이 아니라 질서이며,  
이 질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덜 의심하게 만들어준다.

그 사실이 오히려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

덜 의심한다는 건 곧, 누군가가 의심을 뚫고  
들어올 공간이 많다는 뜻이니까.

당신의 손바닥은 아직도 거칠었다.  
훈련장에서 꺾여나간 피부가 다시 돌아나며 굳  
은살이 올라왔고,  
그 굳은살 사이사이로 미세한 상처가 남아 있  
었다.

무릎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열지 않게 남아  
있고,  
턱을 바닥에 부딪혔을 때 깨진 어금니는 때때  
로 혀끝에 걸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감각을 남기곤 했다.

왕궁에서 주는 약은 상처를 깔끔하게 지워주지  
않는다.  
바다의 축복은 당신을 “치유”하기보다 “버티  
게” 만들고,  
그 방식이 당신을 더 기이하게 만든다.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건 약점이지만, 그 약점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는 건,  
결국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리네는 그날도 왕좌에 앉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식사를 했고,  
당신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동안에도 아무  
말로 당신을 꾸짖지 않았다.

다만 당신이 상처 난 손바닥으로 빵을 쥐는 것  
을 보며 아주 짧게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고,  
그 작은 시선이 당신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리네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지만,  
말 대신 눈빛으로 마음의 무게를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은 그 눈빛을 해석하는 법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리네는 당신을 창가로 이끌었다.

창밖으로는 수로가 내려다보였고,  
수면 위에는 해가 반사되어 얇은 은빛이 길게  
늘어졌다.

인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며 머리  
카락을 뒤로 넘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움직임은 여전히 인간의 미와는 다른 방향  
으로 아름다웠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보여주기 위한 정돈”이라면,  
인어의 아름다움은 “숨쉬기 위한 리듬”에 가깝다.

젖은 머리카락은 바람이 아니라 물결처럼 따라오고,  
얇은 옷감은 물을 머금어 피부에 달라붙은 채  
몸의 형태를 고스란히 드러내지만,  
그 드러남은 결코 과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  
처럼 느껴진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파도의 박자와 맞물릴 때,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몸짓이 아  
니라 바다 자체가 하는 호흡처럼 보인다.

어인들도 수로 옆을 지나가며 물을 흘렸고,  
그들의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달라붙었다가 걸  
음에 맞춰 떨어지는 반복은 노동의 흔적처럼  
단단했다.

귀 뒤의 얇은 아가미 흔적과 손가락 사이의 미  
세한 막은 그들이 인간과 다른 호흡을 갖고 있  
음을 조용히 증명한다.

아이들은 그들이 흘린 물을 뱉으며 웃었고, 어  
떤 상인은 어인의 인사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공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무심  
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당신은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리네가 말했다.

“임무야.”

짧은 단어였지만, 바닥 아래의 물소리와 맞물려 묘하게 깊게 울렸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머리는 아직 무언가를 질문하고 싶었지만 몸이 먼저 긴장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살아남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 살아남음은 결국 누군가의 명령과 누군가의 선택 위에 올라타 있을 것이다.

리네는 회의실로 당신을 데려갔다.

왕궁의 작은 회의실은 장식이 적었다.

바다의 나라답게 벽에는 전쟁 그림보다 항로도 와 수로도가 더 많았고,

검보다 닳이 더 많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섰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서게 되었다.

그녀가 당신을 아래에서 올려다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표면상으로는 무역 사절단 호위.”

리네가 말했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숨 고르는 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그 사이에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임무가 위험할수록 그녀는 말을 더 아낀다.

그 아낀 말 사이에 “돌아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목적은... 항구 안에 숨어 있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것.”

당신은 그 문장을 훈련장에서 배운 언어로 번역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길을 죽이는 것. 정보를 죽이는 것. 도망칠 가능성을 죽이는 것.

바다의 잔물결이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줄이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왔지만, 결국 그 줄임은 누군가의 숨을 끊고 누군가의 미래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은?”

리네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름이 없어.”

이건 나쁜 신호였다.

이름이 없다는 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가 기록 자체를 흐리고 있다는 뜻이며,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왕국은 한 곳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안다.

lucet luna aeternitatis(빛나는 영원의 달)-달의 왕국은 기록을 편집하고,  
미래를 관측하며,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흔든다.

그 왕국의 문양이 항구의 어딘가에 스며들었다면,

이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구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리네가 당신을 똑바로 보았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명령이 아니었다.

평가도 아니었다.

그저 묻는 것이었다.

바다는 늘 이렇게 묻는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 길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당신은 대답 대신 손을 쥐었다.

이제는 안다.

잡는 것과 쥐는 것은 다르다.

잡는 건 순간이고, 쥐는 건 지속이다.

그리고 이 임무는 순간의 용기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쥐고 버텨야 한다.

---

밤이 왔다. 항구의 밤은 낮보다 더 바빴다.  
배는 낮에 드나들지만 거래는 밤에 이루어지고,  
돈은 어둠을 좋아하며,  
배신은 불빛 아래보다 그림자 속에서 잘 자란다.

등불이 켜지고 수로 위로 빛이 길게 늘어졌으며,  
인어들은 밤에 더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곤 했다.

낮의 햇빛이 가려진 수면은 더 깊어 보였고,  
인어들의 피부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반  
투명하게 빛났다.

얇은 옷감은 물을 머금어 몸에 달라붙었고, 물  
방울이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려 쇄골을 지나  
다시 물로 떨어지는 순간마다,  
그것은 기교가 아니라 바다의 반복처럼 보였다.

어인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서  
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눈은 등불을 받아 검푸른 층이 갈라지며 빛났다.

그 눈빛에는 인간이 가진 ‘망설임’보다 생존의 결론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숨을 죽였다.

보이지 않게 지나가야 해서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공존이란 이렇게 유지된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리듬을 존중하며 지나치는 것.

당신은 그 리듬을 따라 걸었고, 목적지는 항구 끝의 창고였다.

창고는 걸보기엔 평범했다.

소금 자루와 말린 생선이 쌓여 있고,

밭줄과 나무 상자가 정리되어 있으며,

문지방에는 늘어붙은 염분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바닥을 먼저 봤다.  
발자국이 있었다. 젖은 발자국.  
항구에서는 젖은 발자국이 흔하지만,  
이 발자국은 너무 규칙적이었다.

물이 튀어 번진 형태가 아니라,  
마치 “젖은 신발을 일부러 찍고 다닌” 것 같은  
흔적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주변에 남은 냄새였다.  
바다의 젖음이 아니라,  
잉크와 금속의 젖음.  
-기록과 계약의 냄새-

달의 왕국이 흔적을 남길 때 나는,  
아주 특유의 냄새.  
당신은 숨을 고르고 몸을 낮췄다.  
통풍구가 보였다.  
원래 쓰이지 않는 작은 구조물.  
당신은 바닥을 짚었다.

손바닥의 상처가 찢어질 듯 다가왔지만,  
따가움은 이제 계산의 일부다.  
훈련장에서 배운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포함”하는 법이었다.

고통이 올라올 때 숨이 흔들리고,  
숨이 흔들리면 소리가 나며,  
소리가 나면 죽는다.  
그래서 당신은 고통을 숨 안쪽으로 눌러 넣고,  
대신 움직임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통풍구 안은 어두웠고,  
공기는 눅눅했다.  
소금 냄새보다 잉크 냄새가 더 강했다.  
그 사실이 당신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잉크는 기록을 의미하고,  
기록은 달의 왕국을 의미한다.

당신은 천천히 기어 들어갔다.  
무릎이 바닥에 스치며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천이 상처에 달라붙었다가 움직일 때마다 뜨거  
는 느낌이 들었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실수를  
만들기 때문이다.

안쪽으로 내려가자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하나는 창고 관리자처럼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반지의 문양이 눈  
에 띄는 인물이었다.

보라빛, 검은 테두리.  
lucet luna aeternitatis(빛나는 영원의 달)의 문양.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예지는 맞아, 오늘 밤이야.” “바다는 아직 모른다.”  
그 말은 단순한 거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즉, 이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구조의 침투였다.

당신은 칼을 뽑았다. 숨을 들이키지 않았다.

내쉬지도 않았다. 숨은 소리를 만든다.

당신은 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숨을 “접는” 법을 배웠다.

접힌 숨은 밖으로 새지 않는다.

당신은 그 접힌 숨을 안고,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 목표는 말을 끝내기 전에 끝내야 했다.

창고 관리자는 아직 달의 문양을 이해하지 못

한 채 돈과 안전을 바꾸려 하는 얼굴이었다.

당신은 그의 뒤로 다가가 입을 막았다.

손바닥 상처가 그의 입술에 닿으며 피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경동맥을 눌렀다.

처음엔 몸이 저항하며 버둥거렸고, 팔꿈치가 당신의 갈비뼈를 쳤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당신은 힘을 더 주지 않았다. 힘을 더 주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 당신은 그저 “확정”만 유지했다.

몇 초가 길게 늘어났고, 그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숨이 끊기는 순간이 조용히 지나갔다.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소리가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잠깐 멍하게 만들었다. 뒷골목에서는 죽음이 늘 시끄러웠으니까.

두 번째 인물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확신이 있었다.  
“이미 늦-” 말이 나오려는 순간, 당신은 그의  
무릎을 찼다. 무릎은 인간이 서 있는 이유다.

그 이유를 무너뜨리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손이 허리 쪽으로 갔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동  
작.

당신은 그 가능성을 잘라냈다. 칼이 움직였다.

깊게 넣지 않았다. 대신 정확하게,  
움직임을 멈추는 지점만 베었다.  
피가 어둠 속에서 뜨겁게 번졌고, 그 뜨거움이  
당신의 손등에 튀었다.

그는 숨을 들이키며 몸을 뒤틀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당신은 그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그의 턱을 눌렀다. 턱을 누르면 혀가 말라붙고,  
목소리가 올라오는 길이 좁아진다.

당신은 그렇게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반지를 보았다. 보라빛 문양이 등불 아래서 차갑게 반짝였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다.

이건 첫 임무가 아니다. 이건 첫 “전조”다.

달의 왕국이 바다의 도시 안에 손을 넣었다는 전조.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려면 더 많은 피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조.

밖으로 나왔을 때 항구는 여전히 평온했다.

인어가 웃고 있었고, 어인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다.

바다는 늘 알고 있다.

당신의 손에 묻은 피를 수로의 물로 씻자,

피는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손바닥에 남은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취었던 감각. 놓지 않았던 감각. 살기 위해, 누군가의 숨을 끄는 감각.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바람은 차가웠고, 당신의 귀에는 바다 소리가 계속 붙어 있었다.

그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는 돌아왔다.”라는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알게 된다. 돌아올 곳이 생길수록, 전장은 더 잔인해진다. 지킬 것이 생기니까.

보고는 짧았다. 바다의 잔물결은 길게 말하지 않는다.

목적은 달성되었고, 연결 고리는 끊겼으며, 반지와 문서 조각 몇 개가 증거로 남았다.

리네는 당신에게 “몇 명을 죽였는지” 묻지 않았다.

“어떻게 끝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질문들이 당신을 닮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 손이 떨리는지, 피 냄새가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았다. 말 대신 눈으로 확인했다. “수고했어.”

리네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음이 깊었다. 당신은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바다는 늘 그렇게 한꺼번에 온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그날 밤, 왕궁은 더 조용했다. 당신은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받았고, 물이 상처에 닿자 숨이 멎을 만큼 따가웠다. 따가움이란 감각은 당신에게 여전히 낯설지 않다. 하지만 오늘의 따가움은 달랐다. 상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되짚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은 붉게 물들었다가, 곧 투명해졌다. 피는 바다로 흘러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은 오히려 사람 안에 남는다.

리네가 약을 들고 찾아왔다. 약초 냄새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상처 가장자리를 아주 살짝 만졌다. 푸른빛이 약하게 번졌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축복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다. 대신 통증이 정리됐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을 만큼.

“미안해.”

리네가 말했다.

그 진심이 당신을 묶었다.

진심은 사람을 묶는다.

그리고 묶인 사람은, 더 멀리 못 도망친다.

리네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하길 바랐어.”

당신은 그 말을 이해한다. 이 왕국은 당신을 가두지 않는다. 이 왕국은 당신에게 도망칠 길을 남겨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길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더 붙잡는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서. 선택은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사람을 남게 만든다.

창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왕궁 아래를 흐르는 물의 소리. 그 소리는 당신의 피와 같은 리듬으로 느리게 뛰었다. 당신은 알았다.

오늘은 첫 임무가 아니라, 첫 귀환이었다.

그리고 이 귀환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 깊이 바다에 묶일 것이다.

리네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라는 삶의 방식 자체에.

그날 밤 당신은 잠들기 직전, 아주 짧게 떠올랐다.

교관의 말.

“잡지 마. 쥐어.”

뒷골목에서 당신은 늘 “잡고” 살았다. 빼앗고,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 손에 힘을 줬다.

하지만 여기서 “쥐다”는 것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조절하는 일이다. 오래 버티기 위해, 손목을 풀고, 숨을 쉰고, 고통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어쩌면 이 왕국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건 전투가 아니라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생각은 곧 사라졌다.

바다는 생각보다 먼저, 당신을 잠재웠다.